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알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다음주는(10월 24일)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교육 / 강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0/17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0/24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요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미사란?

- 라틴어 미사 때 파견 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lte, ‘missa’ est(이때 미사 에스트) 라고 하며, 여기에서 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 미사의 특징 : 말씀의 전례+성찬의 전례
 - 예수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현재화 하는 제사.
 - 최후의 만찬의 성찬례(성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눌 것을 다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의 현재화이고 우리 신앙의 요약이요 집약임.
 -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최상의 예배가 바로 “미사”임.
- 메리 크리스마스= Merry(즐거움) Christ(예수님)mas“s”(미사) 기쁘게 그리스도의 미사에 참례합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일(10/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1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0월06일 ~ 10월12일)

• 교 무 금				6,880,000원	
• 주일헌금				3,607,100원	
• 본당의날 후원		15/16구역		형제회10만원	
• 감사헌금	이병남 5만원	전을경 5만원	김도현 5만원		
	김명순 5만원	최순애10만원	신종구 5만원		
	손진희10만원	황정후10만원	엄영수 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독 서
10/17	박혜선	최승일 정재경
10/24	손진희	안상록 구민서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0/17	김영배	최승일	박형순 오광운	김광수
10/24	이운영	김영배	장인홍 박승환	최상남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획적

92. 인간 삶의 영적인 수준은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결국 사랑은 “한 인간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대함이 다른 이들에게 자기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나 진리를 격렬히 옹호하는 것, 또는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결코 위험에 놓여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며, 가장 큰 위험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코린 13,1-13 참조)

93.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체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하며, 이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쏟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관심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의 선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은 존중과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존중과 인정은 결정적으로 ‘사랑’이라는 말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나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상대방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은 그에게 거저 베풀게 됩니다.”

94. 따라서 사랑은 일련의 자선 행위들보다 큰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은 신체적이나 윤리적 모습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마음에 들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더욱더 그를 향하게 되는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의 삶을 위한 최선을 추구해 나가게 합니다. 이처럼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길러 갈 때에야 우리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는 사회적 우애와 모든 이에게 열린 형제애를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더 열린 사랑

95. 또한 사랑은 우리를 보편적 친교로 향하게 합니다. 그 누구도 고립을 통하여 성숙되거나 총만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역동성 때문에 완전한 상호 소속감을 가지도록 모든 변방을 중심으로 모아들이는 끊임없는 여정에서 점점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더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96. 이처럼 고유한 한계를 넘어야 할 필요성은 서로 다른 지역과 나라들에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에서 상호 연결과 의사소통이 점증함에 따라 우리는 여러 나라 사이에서 일치와 공동운명체 의식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족 집단과 사회와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돌보는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소명의 씨앗을 발견합니다.”